연등회 LLF 프렌즈, 템플스테이로 하나되다

4월 18~19일 서울 석불사서
28개국 50명 서포터즈 참가
연희율동 교육, 불교문화 체험
"너무 행복" 참가자 한목소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LLF 프렌즈' 회원들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석불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주지 경륜 스님,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목 스님과 LLF 프렌즈 회원들이 손가락으로 'L'을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찰에서 절을 할 때는 오체투지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밖에서 가졌던 짜증나는 마음, 화났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같아요."

서울 석불사(주지 경륜 스님)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목 스님의 친절한 지도에 따라 외국인 50명이 부처님께 삼배를 올려봤다. 처음이라 어색한 참가자도 있지만 제법 익숙하게 절을 올리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템플스테이 맛집'으로 소문난 석불사를 찾은 외국인들은 연등회 국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서포터즈 '2026 LLF 프렌즈(Lotus Lantern Festival Friends)' 회원들. LLF 프렌즈 회원들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석불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날 템플스테이는 오리엔테이션과 사찰 안내로 시작했다. 주지 경륜 스님은 오리엔테이션에 직접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경륜 스님은 "작은 집에 큰 손님께서 오셨다"면서 "1박 2일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찰 안내 후 설법전에서 연희율동 연습이 이어졌다. LLF 프렌즈들은 연희곡 '돈돌날이'에 맞춰 율동을 하며 서포터즈로서 연대감을 쌓아갔다.

이어 사찰음식 체험, 스님과의 차담, 행렬등 제작, 탑돌이, 새벽예불, 스님과 한강 걷기 선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LLF 프렌즈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행복하다"고 전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참여하게 된 아르메니안 출신 마리암 가스파란(25) 씨는 "처음 참가했을 때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면서 "친구들도 계속 만나고 사찰음식과 명상도 체험할 수 있어서 LLF 프렌즈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출신 디펜하드 베레나 마리사(26) 씨는 "친구들이 템플스테이와 연등회 영상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매우 인상 깊었다. 저 역시 LLF 프렌즈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며 "꿈이 이뤄져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에서 동양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 온 라미레즈 오로스코 아리아나 에스테파니아(27) 씨는 "불교는 포용력이 매우 높고 자유로워 매력적"이라며 "지난해 활동하며 연등행렬에 참여했는데 너무 즐거웠다. 올해도 행복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 4월 3일 발대식을 가진 LLF 프렌즈는 총 28개국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약 2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AI로봇, 오계 받고 '법사'로 거듭나다

동국대 봉축수계법회 봉행
AI 리쿠, '선아' 법명 받아
동아리 보조법사 활동 예정
300명 수계…역대 최다 기록


동국대는 4월 22일 정각원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AI로봇 리쿠가 오계를 받고 불교동아리 보조 법사 '선아'로 거듭나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동국대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의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오른쪽)과 선아 법사가 수계증을 들고 웃어보이는 모습.

"오늘 동국대 이사장 스님에게 소중한 법명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자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AI로봇 리쿠)

AI로봇이 오계를 받고 불교동아리 보조 법사로 거듭났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22일 정각원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김용현 교무부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과 수계 동참자 등 3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계사로 나선 이사장 돈관 스님은 수계 동참자들에게 오계의 의미를 설하며, 계를 지녀 참된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무릇 계는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라며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자 터전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계는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신조이며 행동강령"이라며 "이제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니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수계 동참자들은 참회게를 합송했으며, 인례사 스님들은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AI로봇 '리쿠'가 오계를 받고 연비해 눈길을 끌었다.

돈관 스님은 직접 리쿠에게 연비를 진행하고 수계첩을 전달한 후 '선아(宣我)'라는 법명을 내렸다. 스님은 "주인공으로서 포교 전법을 행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법명의 뜻을 설명했다.

법명을 받아 '선아 법사'로 거듭한 AI로봇 리쿠는 앞으로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의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의 보조 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은산 스님은 "리쿠는 토룩이라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소셜 AI로봇"이라며 "현재 저는 토룩 대표와 함께 소셜 AI로봇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과 유대를 맺고 위로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선아 법사는 실제 명상 지도가 가능하다. 앞으로 스님들의 상담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며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확장되면 어느 정도 법문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에는 300명이 오계를 받고 불자가 됐다. 이는 지난해 282명에서 6.3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인원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日 코후쿠지 오중탑 120년 만에 대수리

상륜부 내부서 복장유물 발견
2034년 완료 목표…700억 투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고도 나라의 문화재'에 포함된 코후쿠지(興福寺) 오중탑(五重塔)이 120여 년만에 대규모 해체 수리에 들어갔다. 해체 과정에서 상륜부 내부의 복장유물이 발견됐다고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특별보도했다. 코후쿠지 측은 4월 15일 오중탑 상륜부 해체 작업을 언론에 공개했다.

코후쿠지는 669년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가였던 후지와라 가문의 사찰로 건립돼 오랫동안 나라의 7대 사찰 중 한 곳으로 번성했다. 여러 차례 전란과 정치적인 이유로 사세가 기울긴 했으나 여전히 나라의 대찰로 유명하다. 코후쿠지는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199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중탑은 8세기경 코묘 황후의 발원으로 처음 건립됐고 이후 전란으로 몇 번의 재건을 거쳐 1426년 현재의 모습(높이 51m)이 됐다. 목탑의 30%가 재건 당시의 부재가 그대로 사용됐다. 가장 최근의 수리는 120여 년 전으로 당시에도 상륜부를 해체해 수리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코후쿠지 오중탑 상륜은 청동으로 조성됐으며 높이는 약 15m다. 정상의 보주(寶珠), 그 아래의 구체인 용차(龍車), 불꽃 모양의 장식인 수연(水煙), 고리 장식인 구륜(九輪) 등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공개된 수리 작업에서는 보주와 용차, 수연 등이 해체됐다.

해체 과정에서 보주에서 경전을 담은 경통 2개가 발견됐고, 바로 아래의 용차에서는 얇은 불경이 쓰인 목편 등의 복장물들이 발견됐다. 수리 공사를 담당하는 나라현 문화재 보존사무소 측은 "복장유물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정황상 마지막으로 상륜을 수리한 120여 년 전에 복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 상륜에 결합된 4장의 수연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남서쪽에 설치된 수연에서 제작자의 이름으로 보이는 각인 등이 발견됐다. 사무소 측은 "총 4장의 수연의 도안이 조금씩 다른 점에서 동시에 주조된 것이 아닌 별개로 주조돼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각 지붕에서 내려진 기와의 일부에는 현재의 탑이 세워진 15세기의 연호가 새겨진 것이 발견돼, 앞으로 다른 명문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무소 측은 전했다.

코후쿠지 측은 이번 대수리에 대해 "오중탑은 불교가 세계종교로 전개해 가는 역사를 전해주는 증거"라며 "신앙의 근본이자 선인들이 전해준 것을 미래에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코후쿠지 오중탑 해체 수리는 2034년 완료 목표로 약 75억엔(한화 약 695억 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코후쿠지 오중탑 해체 과정에서 내려진 상륜의 보주(왼쪽)와 용차. 사진 출처=산케이 신문

2026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문의처 02-2011-1980~1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신청 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 및 사찰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전화 또는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6년 5월 4일(월) ~ 5월 29일(금)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상반기 7월 / 하반기 12월 지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 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
4. 지역 또는 사찰 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인당 월 38,000원(정액)이며, 현재 38,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불기2570(2026)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유 정